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 서종로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01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1월 1일(음력 9월 11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 29

## 내가 한다는 게 붙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

### 산 불교가 되게 하려면...

**문** 부란의 핵 실험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안정한 안보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내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할까요? 참다운 불자로서 마음의 안정과 안식만이 목적이 아닌 산 불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답**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잘 들으세요. 차분하지 못하다면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계에는 욕심이 많아서 싸움이 생기고 서로 쫓기고 쫓으면서 지금 난리 아닌 난리를 치고 가는 겁니다. 몸으로 질러 죽어서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탄 나라도 그렇고, 물질과 물질이 붙는 싸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알력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싸우고 가지 않습니다. 먹고 먹히면서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타파하면서 대처하면서 충당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마음 도리, 이 도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인간 자체 자기부터 완성해라 모든 이치를 알고 일체제물의 공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의 교리를 그냥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인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고 몰라서치고 않고, 탄벌이 들고 나는 작용을 항상 자기 원력에다가 놓고 말고, 그렇게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선이며 행선(行禪)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항상 되풀이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신다면 앞으로 이득이 하나도 없고 이득이 없는 반면에 지구라는 배 안에서 사는 생명들에게도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동물, 이런 말들이 이름으로 지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자체로 인해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생물학이나 또는 정치나 국민이나 공학이나 하는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나온 겁니다. 문화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말입니다. 전자에도 그런 말을 모두 유식하게 했지만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계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오랜 역사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인간으로서 주어진 능력으로 행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대로 우리 역사가 달라지며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말로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법(法)이 될 수 있게끔, 생활에 실천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말 자체가 현실로서 일체 만물 유생 무생(有生無生)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서 우주의 개발로부터 우리 인간의 계발이 동시에 실천에 옮겨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 도리를 알아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참나 참나 무기가 된다면, 그 하나가 바로 '은 나와라 푹푹! 금 나와라 푹푹!' 하는 속담의 말처럼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죠. 한마음의 한 점은 바로 우주의 근본이며, 태양의 근본이며, 바로 천지의 근본이니 내 한마음의 한 점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한 점이 아까 속담의 말처럼 '은 나와라 푹푹! 금 나와라 푹푹!' 인데 나오는 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도 주는 것도, 하는 것도 드는 것도, 받는 것도 굴리는 것도 모두 그 한 점의 마음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야만 되는 건가.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그 한 점의 요리를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자체를 한마음으로 굴리면서, 바깥으로 굴리지 않고 안으로 굴리면서, 안으로 굴린 거기서 무심코 한 생각나는 것이 우주 개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주의 개발이 우리 지금 살아아가는 생활 속에 있다면 바로 신성한 우주의 개발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우주만 신성하고 여건 신성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모두가 신성한 곳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설법으로만 듣고 그냥 것만으로 흘러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천에 옮기는 말을 하지 실천이 아닌 말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가깝게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세계적으로 합류가 돼서 벌어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잔잔히 가라앉고, 가라앉는가 하면 일어나고 하는 문제 등등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한마음 그 뜻이, 우리 지구를 지속시키는 반면에 모든 공해가 빠져 달아나고 또는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를 이루고 굴곡이 지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닦기 위해서 발판을 세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어떻게 해야만 그런 거를 다 실천해서 평온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는 우주의 개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서 여기 옮겨 놓으면 모르고 저기서 저기 옮겨 놓으면 모르듯이, 굽벙이가 매미가 될 때 모르고 매미가 굽벙이가 될 때 모르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연쇄적으로 진화되면서 형성해 온 것을 모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개발된 것이, 지금 유전자로써 많은 물질이 바뀌어지고 하고 또는 많이 나기도 하는 것을 연구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무무(無漏)의 무전자로 하여금 유전자와 유전자로 하여금 물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무의 무전자와 그 유전자를 없앨 수도 있고 또 많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전자의 원자력도 될 수 있고 통신력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력에 의해서요. 즉 말하자면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석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에 붙으면 붙는 대로 타 버리는 능력이 아주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뭐든지 집어삼킬 수 있고 또는 그것을 요리해서 에너지로 만들고 영양소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 있다는 얘깁니다.

든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너무 높은 것은 낮추고 너무 낮은 것은 올리고 하는 그 마음, 한마음의 도리에 지혜로운 폭넓은 마음, 그런 큰 그릇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뜻을 갖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통일도 될 수 있고요. 마음을 다르면 몸도 다룰 수가 있거든요. 세계를 움직여라 하는 것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 애육에 대해서

**문** 스님께 애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가세존(釋迦世尊)께서도 이르시기를 애육보다 더 광대한 건 없다고 하였고, 애육이 이 세상에 하나만 더 있어도 성불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과연 애육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과제인지요?

**답**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없다면 어떻게 애육이 있었겠소, 당신 자체가 없는데. 당신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당신이 남아 있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남아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상대가 있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애육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어난 꽃들의 움추러짐에 연관을 시키면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이 없이 했고 가고 움이 없고요.

그래서 가고 움이 없이 여기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누가 올라왔어요? 발자취도 짙어진 게 없고 또 몸속에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겹뎀기가 어디서 생겨서 올라왔어요? 알고 본다면 더불어 같이 들어가는 거지 자기 혼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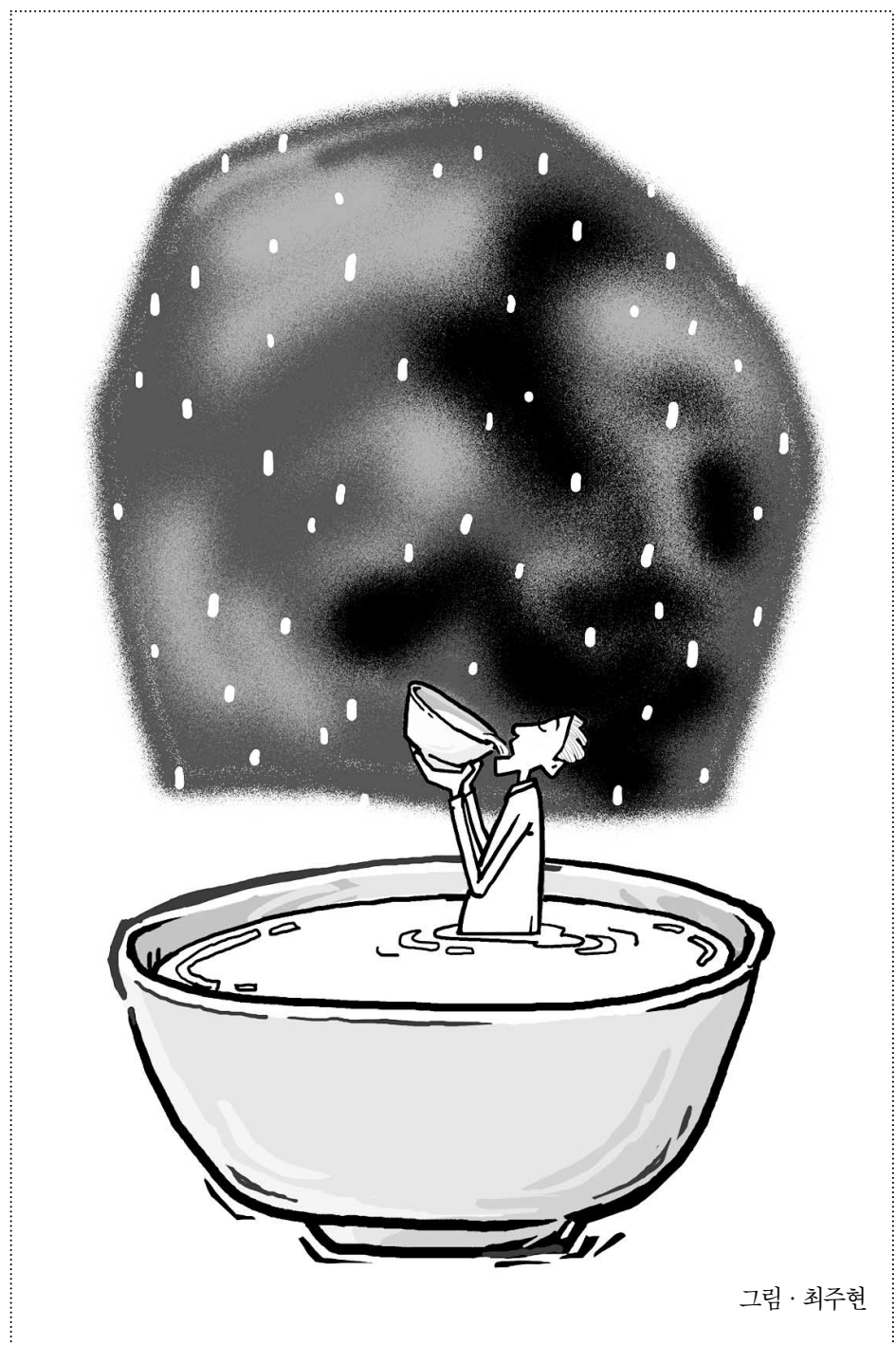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을 가난하게 두지 마시고  
우울하게 두지 마시고  
항상 보람 있고 생동력 있고 겸손하게  
웃는 낯으로 대하세요!

바뀌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이라 하면 물하고도 통하거나 마음으로는 열든 그 게 바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제대로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길 수도 없고, 맡기지 못하니까 방향하게 되고 방향하니까 일이 잘 안되고 이런 거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들 하세요.

### 올바른 진화를 할 수 있으려면...

**문** 과거의 업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이 생에서 심은 습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둔한 저희들은 아직도 마치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업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진화를 할 수 있는지, 영(靈)과 불성(佛性)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답** 영(靈)이라는 것과 불성(佛性)은 다르니까.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모습 없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불성은 아닙니다. 혼(魂)이라는 것도 영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혼(靈魂)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릇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따라서 작은 그릇이면 작은 영혼일 것이고 크면 큰 영혼일 것입니다. 불성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갖가지로 다르게 마음을 내는 것 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데 비유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아가는 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을 이름 붙여서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 하나가 만사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죠. 영혼이 불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고 잘되는 거를 이끌어 가는 그 자체가 들고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불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돼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

에 불씨가 돌아가는 것처럼 불성에 이끌려서 우리도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도 꼭꼭도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도 돌아감이 없는, 더하고 탈함도 없는 그것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의 그릇이, 그릇 없는 그릇이 있어야 할 참나에 드러서 묘법의 생활을 하시고 한 참나에 나신다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미래에서 볼 때는 현실이 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서 다시 올 때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볼 땐 여기가 과거고 여기서 볼 때는 그게 미래입니다. 우리가 정신세계의 차원을 삼차원으로 볼 때, 영혼이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에 자기 그릇대로 노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마는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반면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화생(肉化生)에 지배인이라면 그 지배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즉 악이 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배자가 될 양으로 그 정신세계에서도 싸움 아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가 참 좋은 아들을 달라고,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다 자비하게 사랑하면서 이끌어 주는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받고 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을 기르다가 얼마안돼서 어머니마저 죽어 버렸습니다.

그엄마는 정말이지 부처님한테 진심으로써,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염원하다가 그대로 앉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텅 가 보니까 너는 지금 낳은 아들을 또다시 가서 낳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성해서 이 세상이